주체 1 0 9 (2020)년 3월 7 ₉ 토요일 음력 2월 13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진행

전당, 전국, 전민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 의 결정관철을 위한 정면 돌파전을 전개하고 과감한 투쟁의 격변기를 열어 나가고있는 관건적인 시기 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 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 임에 따라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운영집행하시였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고 당의 대렬과 전투력을 부단히

주의, 부정부패행위들이 집중비판되고

토의되였다.

들에 대한 당중앙의 분석과 립장에 이라고 하시면서 이 비루스감염증의 대하여 천명하시고 제기된 비당적,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잠복기도 불확정 타격을 가하신 다음 모든 당일군들과 해명이 부족한 조건에서 우리 당과 급속히 전파되고있는 비루스전염병을 을 찾고 자기자신들과 자기 단위들을 가장 확고하고 믿음성이 높은 선제적이며 이고 봉쇄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적문제 철저히 관철하고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막기 위한 초특급방역조치들을 취하고 혁명적으로 부단히 단련하기 위해 노력 결정적인 방어대책들이였다는데 들이 토의되였다. 엄격히 실시할데 대한 문제들이 심도있게 하며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류입되는 경우 초래될 후과는 심각할것 우리 나라의 방역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적이며 정확한 전파경로에 대한 과학적

방역적대책들의 경험에 토대하여 시급히 하시였다.

방역수단과 체계, 법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방역체계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적인 비 안에서 그 어떤 특수도 허용하지 말아야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인민들의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당중앙의 사상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세계적으로 상방역에 관한 법을 수정보완하고 국가 한다고 하시면서 비상방역사업과 관련 생활상편리를 최우선시하는 조선로동당 과 령도풍모, 사업방법을 제일선에서 따라 급속히 전파되고있는 비루스전염병을 위기관리규정들을 정연하게 재정비하는 한 중앙지휘부의 지휘와 통제에 나라의 건설정책의 요구에 맞게 평양시와 지방의 배 우고 구현해야 할 당중앙위원회 막기 위한 국가적인 초특급방역조치들을 것이 시급한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최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무조건 절대 살림집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대책적문제 간부들과 당간부양성기관의 일군들속에서 더욱 철저히 취하고 엄격히 실시하는데서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을 비롯한 복종하고 철저히 집행하는 엄격한 규률 들이 토의되였다. 발로된 비당적행위와 특세, 특권, 관료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였다. 련관기관들은 전염병사태와 관련하여 을 확립하며 이에 대한 당적장악보고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걷잡을수없이 현재 취해진 선제적이며 강력한 수준의 법적감시를 보다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 취급되였다.

지휘부에서는 이미 세워준 사업체계와 질서대로 전염 병이 들어올수 있는 모든 통로와 틈을 완전봉쇄하는 것과 함께 검병, 검사, 검역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조성된 형세와 조건에 맞게 경제조직사업과 방역사업을 짜고들어 올해의 투쟁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하고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철저히 지킬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각급 당조직들이 당중앙의 사상을 똑바로 인식하고 행동실천에 옮기는것이 중요 하다고 하시면서 내각과 각 경제기관들이 현 상황에 맞게 경제작전과 지휘를 실현할수 있게 당적으로 힘있게 추동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취하는 방역조치들은 단순한 방역사업이 아니라 인민보위의 중대한 국가적사업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전염병의 이며 당중앙위원회의 무거운 책임이라고 생명안전보장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하여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조직문제가

본사기자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군부대들의 합동라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2월 28일 인민군부대들의 합동타격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훈련은 전선과 동부지구 방어부대들의 기동과 화력 타격능력을 판정하고 군종 합동타격의 지휘를 숙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 적인 훈련지도를 받게 된 전선과 동부지구 방어부대,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시소에 오르시여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굳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혁명무장력의 드팀없는 의지

와 영웅적전투정신이 남김없

이 과시된 훈련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커 다 라 만족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 어느 시각에 명령이

하달되여도 즉시 전투에 진입

할수 있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있는 군종부대들과

전선과 동부지구 방어부대들의

전투력에 대하여 감탄을

표시하시면서 훈련에 참가한

전체 인민군군인들에게 전투적

인사를 보내시고 최고사령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부름에 무한히 충실한

인민군대가 자기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주체의

혁명위업과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불패의 군력으

로 확고히 담보해나가리라는

의 특별감사를 주시였다.

드리고 끝났다.



조선로동당의 일당백사상으로 튼튼히 실전을 대비해 훈련해온 인민군군인들은 터치며 목표섬을 불바다로 만들었다.

무적의 총창으로 억척같이 보위해나갈

경 애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 선 인 민 군 전 선 장 거 리 포 병 구 분 대 들 의 다 격 훈 련 을 지 도 하 시 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정면돌파전사상 혁명의지가 활화산처럼 분출되고 전군에 휘몰아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뒤흔들고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3월 2일 조선인민군 들끓고있었다.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 더 높이 지퍼올려주시였다.

꿈결에도 뵙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을 멸적의 총창으로 받들어나갈 불굴의 또다시 훈련장에 모시고 포실탄사격 구분대들에 하달되자 전선장거리포병 대해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훈련을 지도받게 된 전선포병들의 가슴 들은 일제히 섬멸의 포문을 열었다. 일당백전투정신과 훈련혁명의 불길이 가슴은 인민군대 전투력강화를 위해 련일 전투력강화의 포성이 하늘땅을 불길을 지펴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차고 날아올랐다. 훈련장을 찾고 또 찾으시며 포병싸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 준비의 진로를 밝혀주신 강철의 령장 불타는 애국심을 멸적의 포신마다에 사회주의조국을 금성철벽으로 보위해 지도를 받는 무한한 영광을 지닌 전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의 위대한 손길아래 필승불패의 전투 만장약하고 조선로동당의 일당백사상으로 나갈 철석의 의지와 불타는 조국애를 장거리포병들은 조국과 인민이 자기들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대오로 자라난 자기들의 전투력을 이번 무장하기 위해 줄기차게 달려온 훈련의 간직하고 훈련혁명의 불바람을 세차게 에게 맡겨준 성스러운 조국보위임무에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훈련에서도 남김없이 과시할 열의로 나날 자기들이 런마해온 명중포사격술을 일으켜나가야 한다고 뜨겁게 고무격려해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시소에서 하시고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자랑차게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선장거리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격개시명령이 하게 수행할수 있게 준비되여있는데

땀방울에서 표현된다고 하시면서 전군의 말씀하시였다. 훈련에 참가한 전선장거리포병들은 전체 장병들이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의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 계속 떨쳐나갈 전투적사기와 열의에 훈련장을 찾으시고 훈련혁명의 불길을 화력타격훈련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 포병들이 그 어떤 정황에도 신속하게 위업의 승리는 강력한 군사력과 전쟁 충만되여있었다. 대응하여 자기의 화력전투임무를 완벽 억제력에 의해 담보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는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 를 그 누구도 범접할수 없게 철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들의 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자기의 하늘땅을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속에 가장 열렬한 애국심은 비가 오나 전투력을 부단히 강화해나가며 우리 그처럼 마음쓰시며 몸소 명포수운동의 섬멸의 방사란들이 목표를 향해 대지를 눈이 오나 가림없이 훈련장에 뿌리는 당의 혁명위업을 받들어야 한다고

>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훈련 언제나 충실하며 싸움준비강화의 자랑찬 성과로써 김정은포병의 영예를

> > 본사기자















평양의 모란봉기슭 만수대 에는 천리마동상이 있다.

한달음에 천리를 간다는 전설속의 날개달린 말을 조 형화한것이다. 대지를 박차 고 날으는 천리마에는 두명 의 기수가 형상되여있는데 한명은 녀성이다.

대동강반에 하늘높이 서있 는 주체사상탑 탑신아래에 세워져있는 3인군상의 한명 도 녀성을 형상하고있다.

공화국의 강화발전과 미래 를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일익을 맡고 자기의 힘과 지 혜, 열정을 바치는 녀성근로 자들의 상징이다.

아름다운 녀성근로자들의 형상은 공장과 농촌에서 그 리고 과학, 교육, 보건, 체 육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남 성들과 어깨나란히 하고 한 몫하고있는 녀성들의 모습을 담고있다.

공화국에서 녀성들은 사 회발전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미는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수레는 두바퀴가 다 굴러 야 나간다. 한바퀴로는 갈

공화국의 녀성들은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서 남성들과 꼭같은 권리를 가지고있다.

공화국이 걸어온 력사의 갈피갈피에, 국가와 인민의 모든 재부들에 그들이 흘 린 고귀한 피와 땀이 슴배

자기 운명의 주인, 나라 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기 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 사회적부의 창조자, 향유자 로서의 삶을 누리는 공화국 녀성들의 모습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녀성중시, 녀성 존중의 해발아래 자기 운명 을 되찾은 자주적인간들의 참모습이다.

오랜 력사적기간 가정과 사회에서 짓눌리고 천대받아 왔고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는 2중, 3중의 억압을 받으 며 온갖 치욕과 불행을 강요 당하여야 하였던것이 조선녀 성들의 불우한 운명이고 처

지였다. 일찌기 민족자주위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대전 의 나날에 녀성들의 사회적 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뜨

해방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력사적과제로 내세우시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남녀평등권실현을 위한 명확 한 길을 밝히시였다.

관심과 로고와 심혈을 기울 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남녀평등권법령을 발 포하시여 남성들과 꼭같은 지위와 권리를 찾으려던 녀 성들의 세기적소망을 풀어 주시였다.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녀 성해방선언이 있었음으로 하 여 조선녀성들은 세기를 두 고 이어온 굴욕의 멍에를 벗 어던지고 사회발전의 힘있는 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할수 있게 되였다.

면 사회주의건설을 할수 없 다고 하시며 녀성들의 역할 을 중시하신 위대한 수령님 의 크나큰 믿음속에 녀성들 은 부강조국건설에서 나라 와 민족앞에 큰 자욱을 남 기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녀성 중시, 녀성존중의 정치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 여 그대로 이어지였다.

그이께서는 녀성들은 혁명 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 있는 력량이라고 하시며 그 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자 기의 역할을 다하도록 크나 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 시였다.

생산과 건설에 적극 기여 하고있는 녀성들, 부모없는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안아 키우는 녀성들을 영웅으로, 애국자로 내세워주신 장군님께서는 전사회적으로 녀성들을 사랑하고 존중하 는 기풍이 더욱 차넘치도록 보살펴주시였다.

녀성들에 대한 노래가 창 작되였을 때에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국제부녀절을 맞으며 내보내도록 하시였 고 명절을 맞는 녀성들에 게 고급화장품도 보내주신

지금으로부터 10년전 그이께서 3.8국제부녀절 100돐을 맞으며 온 나라 모 든 녀성들에게 보내신 축하 는 오늘도 영원한 메아리가 겁게 마쳐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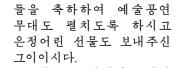
받

나는 당과 수령에게 무한 히 충실하고 조국의 부강번 영을 위하여 헌신하며 고상 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닌 녀성문제해결에 크나큰 우리 녀성들을 크나큰 자랑 으로 여기며 조선녀성들의 력사적공적을 높이 평가하 여 이번 기회에 온 나라 전 체 녀성들에게 열렬한 축하 를 보냅니다. …

> 녀성들에게 보람찬 삶의 길, 참다운 애국의 길을 열 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녀성중시, 녀성존중의 력사 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지고

녀성들이 없으면 가정도 사 녀성들의 힘을 믿지 않으 회도 나아가서 조국의 미래 도 있을수 없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는 녀성 중시, 녀성존중의 크나큰 믿음과 숭고한 사랑이 담겨

>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어머니날을 제정하 도록 하시였고 제4차 어머니 대회를 비롯한 녀성들의 대 회들도 열도록 하시여 그들 을 시대의 한복판에 높이 내 세워주시였다.



녀성들을 위하여, 어머 니들을 위하여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터운 관심과 배려는 평양산원 유 선종양연구소, 옥류아동병 원, 평양화장품공장, 평양어 린이식료품공장, 김정숙평양 방직공장과 김정숙평양제사 공장의 로동자합숙, 평양가 방공장과 민들레학습장공장 을 비롯한 창조물들과 재부

들에도 어리여있다.

신발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 녀성들이 신을 신발의 무 게를 몸소 저울에 달아보신 그 손길, 새집들이한 가정 을 방문하시면서 녀성들이 좋 아하는 부엌세간도 안겨주신 다심한 그 은정은 녀성들에 대한 그이의 친근한 정과 보살피심의 열도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나라 의 꽃, 사회의 꽃으로 내세 워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복속에 보람찬 삶을 향유 하는 조선녀성들에게는 노래

《녀성의 노래》, 《사랑 국제부녀절을 맞는 녀성 하시라》, 《우리 집사람》,

《녀성은 꽃이라네》를 비롯 하여 녀성들의 노래, 녀성들 에게 바쳐진 노래는 그대로 녀성들의 아름다운 삶을 구 가하는 심장의 메아리, 은혜 로운 보살피심에 대한 찬가

몇해전 아일랜드의 한 사 회계인사가 조선을 방문하였 었다.

조선에 체류하는 기회에 모성의 눈으로 녀성들의 로 동생활현장도 돌아보고 사회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종사 하는 녀성들을 만나도 보며 그들의 생활일면을 목격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다시 태여난다면 조 선녀성으로 태여나고싶다. 조선이야말로 녀성의 권리가 참답게 보장되고 녀성의 존 엄이 가장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는 녀성들의 천국, 어 머니들의 리상사회이다.》

복, 인간은 누구나 복을 바란다. 녀성들의 경우에야 더 말할것이 있는가.

행복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녀성들이 원하는 희망이거늘 조선녀성들은 누 구나 말한다.

우리는 복받은 삶을 향유

한다고.





흔히 사람들은 녀성이라고 하면 연약하고 부드럽 다는 생각을 먼저

한다.

그래서 많은 나 라들에서 녀성들이 차요시되고 가정잡 사나 돌보는것으로 여기는것이 하나의 풍으로, 관례처럼 굳어져왔다. 실지 로 인류력사의 갈 지 되마다에는 천대 받고 멸시받는 녀

받고 멸시받는 녀 성들이 흘리고흘린 눈물자욱들이 마치 도 그들이 걸어온 파란만장의 자취마 냥 점점이 찍혀져 있다. 녀성들은 자기의

쟁취하기 권리를 위한 투쟁을 오래 동안 벌려왔다. 그 과정에 눈물로 얼 룩졌던 녀성천시의 력사에 새로운 장 을 펼쳐놓았다. 1910년 제2차 국

제사회주의자녀성 대회에서 매해 3월 斧 8일을 전세계 근 로녀성들의 명절 결정하였던것이 로 다. 그때로부터 어 한세기가 넘은 언 세계인권선 오늘 남녀평등에

관한 문구가 새겨 지고 녀성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법규범들이 채택 되였지만 절대다수의 녀성 들이 녀성천시의 불평등과 무권리속에 계속 신음하고

오죽했으면 녀성들의 이러 한 처지를 두고 일본의 어 느 녀성이 《우리는 여전히 19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작 가 유고가 쓴 장편소설 〈노 뜨르담대사원》의 주인공 에 스메랄다와 듀마의 장편소설 〈동백꽃아가씨〉에 나오는 마르그리뜨의 처지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있다.》고 개탄 하였겠는가.

다 같은 사람일진대 녀성 이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일 하고싶어도 일할수 없고 설 사 힘들게 일해도 응당한 보 수를 받지 못한채 온갖 멸 시와 차별의 대상이 되고있 는것이 《문명》과 《발전》 을 떠드는 나라들에서도 흔 히 볼수 있는 현상이다.

녀성들에게는 과연 희망이 없는가. 녀성들은 항시 남자 들의 보호속에서만 살아야 하는가.

그러나 그 인간세계의 어 길수 없다고 보아온 계률을 단호히 부정한 나라가 있 다. 녀성들을 남자들과 평 등한 존재로 여기며 존대하 고 우대하고 내세우는 사회 가 있다.

나 이 제 리 김일성 -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 는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시 책에 떠받들려 많은 녀성들 이 애국자로, 영웅으로, 시 대의 선구자로 존엄높고 궁 지높은 삶을 누려가고있다 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

《조선에서는 적지 않은 녀성들이 기관, 기업소와 협 동농장들의 책임일군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까 지 되여 국가와 사회를 위 하여 적극 활약하고있다. 조 선녀성들의 존엄과 긍지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김정은령도자에 의하여 높

은 경지에 이르게 되였다.》 공화국에서는 녀성을 가정 의 꽃, 사회의 꽃, 나라의

꽃으로 내세운다. 공화국에서는 녀성들을 인 생의 한길을, 사회발전의 한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진정한 동반자로 내세우고 있다

조선의 녀성들은 그처럼 가정의 귀중한 존재, 국가와 사회에 없어서는 안되는 더 없이 귀중한 사람들로 떠받 들리우고있다.

언제인가 중국의 한 동포 녀성은 자기가 쓴 책의 서두 에 이렇게 썼다.

《조국에 발을 내디딘 처 음 내가 호기심을 가졌던것 은 녀성으로서 북부조국에서 사는 녀성들의 삶과 운명이 였다.

조국녀성들의 삶을 조명해 보고싶은 나의 꾸준한 노력 은 헛되지 않았다. …

마치 지상에서 천국의 꽃 을 피우는것과 같은 참으로 아름답고 헌신적인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깊은 충동을 받았고 많은것을 배웠다.》

사회현실에는 정치가 비껴 있다.

녀성들에 대한 사랑과 믿 음의 정치를 펴나가는 공화 국은 녀성증시, 녀성사랑의 천국으로 그 이름 더욱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꽃으로 행운을 기원하거나 즐거움을 표시하고 축하하는 일은 오늘날에도 많이 볼수 있으며 그 모습도 매우 다양 하다. 세계적으로 자기 나라 에 귀빈이 오면 환영의 마 음을 나타내기 위해 어린이

들이 비행장이나 역에서 꽃다발을 주군 한다. 예술 공연이 끝난 다

음에도 관람자들은 무대에 올라가 꽃다발을 전해주면서 감동을 표시한다. 입학식이 나 졸업식때에는 축하의 의 미로 꽃다발을 선물하며 병 문안을 갈 때에도 완쾌를 바 라면서 꽃다발을 준다. 런인 들사이에서도 꽃은 애정의 표시로 되고있다.

공화국에서 꽃을 제일 많 이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가.

것은 훌륭한 공연에 대한 찬 사, 연기를 잘한 사람들에 대한 찬사일것이다. 인간이 인간에게 꽃을

선사한다면 그 꽃을 제일

무대우에 선 배우들일가. 배

행복의 A PE 많이 받는 사람들이 공화 국에서는 아마 녀성들일것

> 이다 가정에서도 받고 직장에서 도 받고.

> 국제부녀절, 어머니날, 남 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된 기념 일을 비롯하여 공화국에는 녀성들을 위한 명절과 기념

> 일이 많다. 이러한 명절과 기념일들

에 녀성들이 축복의 상징으 우가 꽃을 선사받는다면 그 로 빠지지 않고 받고있는것 이 바로 꽃이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집단

을 위해 장하고 아름다운 일 을 하여 받고 또 받는 꽃은 얼마나 많은가.

리마다에는 꽃 방들이 많고 그 곳에서 봉사하

는 아름답고 향기그윽한 꽃 을 받아안으며 기쁨과 행복 의 웃음을 짓는 녀성들의 모 습은 너무도 흔한 풍경으로 되고있다.

꽃과 조선녀성들. 정녕 축하의 꽃세계에 살 면서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 그윽한 삶을 누리는 공화국 의 녀성들이다.

본사기자 박철 남

શ 는 이 세상에 우 리 인민처럼 좋은 시면서 우리는 세 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하늘 처럼 받들어야 하 며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절대로 저

0

શ

9

司

9

ह्ये

9

1

S

버리지 말아야 한 다고 하시였다. 불같이 뜨거운 위인의 정에 끌 려 이 세상 끝 까지라도 그이와 함께 가려는 인 민의 지지와 힘 을 자신의 제일 큰 자산으로 여 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

서 이 땅의 인민 들은 많은것을 생 각하고있다. 다. 그래서 돈과 물건이 많은 사 람을 가리켜 자 산가라고도 한것 이다. 또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자 산에 대한 견해 는 그 폭과 령역

이 넓어져 인재와

과학기술, 첨단

무장장비를 자기 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자 산으로 삼고 거기에 의거하

그러나 력대로 인민의 지 지와 힘을 제일 큰 자산으로 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류 삼은 나라나 정치가는 없다.

지금으로부터 다섯해전 라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 이 땅

최 고 령 도 자 을 잃은 세대들에 더 멋있 김정은원수님께서 고 훌륭한 새 집을 지어준다 는 소식을 듣고 보수하면 얼 마든지 쓰고살수 있는 집을 제손으로 허물어버렸다는 사 실을 아시고 일군들에게 당 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하였을것이라 고, 당에 대한 인민들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제일 소 중하다고, 재부중에서도 제 일 귀중한 재부가 인민들의 믿음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인민들의 믿음이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멸사복무의 정신으로 인민들 의 그 믿음에 보답하여야 한

> 다고 하시였다. 인민의 믿음이면 더 바랄것 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신 인민의 령도자이시기 에 폭설과 폭염도, 풍랑세찬 바다길도 두려움없이 맞받아 나가시며 번영의 활로를 앞

장에서 열어나가시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 예로부터 자산 민의 힘을 크게 믿으시고 그 이라고 하면 돈 힘을 최대로 발양시켜 부강 과 재물을 일러왔 조국건설을 이끌어가신다.

>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 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 이 아니라 인민이며 인민이 있어 나라도 있고 조국도 있 다는것이 인민에 대한 사랑 과 믿음의 정치를 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조이다. 인민의 힘, 그것은 얼마나 무한대 한것인가.

창전거리, 은하과학자거 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 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미 림승마구락부, 릉라인민유 원지, 문수물놀이장, 마식령 스키장, 보건산소공장, 옥류 경안과종합병원을 비롯하여 최근년간 공화국에서 일떠선 발걸음소리가 쩡쩡 울리고있 선시가 큰물피해를 입었을 수많은 창조물은 절세위인의 는것이다.

경 애 하 는 는 일부 주민들이 당에서 집 의 인민들이 제손으로 창조 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다.

> 공화국이 적대세력들과 의 대결에서 추호도 굽힘 이 없이 자기가 선택한 정 의와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 정면돌파전도 벌러나가고있 는것도 령도자의 구상이라 우며 기적을 창조하는 훌륭 하고 힘있는 인민이 있기때

> 자기들을 믿고 내세워주며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거 창한 창조대전에로 이끌어 주시는 령도자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에 새기며 전체 인민이 더욱 분발하고 일터 마다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가고있다.

지난해만 놓고보아도 적대 세력의 류례없는 압살책동속 에서 과감한 건설속도로 중 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와 어랑 천발전소의 팔향언제를 일떠 세웠으며 불리한 자연기후조 건에서도 농업생산에서 최고 수확년도를 돌파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는 결코 몇 몇 사람들에게 의거하여 혁명 하려는 사람이 아니다, 혁명 과 건설의 주인, 그 직접적담 당자는 인민대중이라고 하시 면서 나는 철저히 광범한 인 민대중,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키워주시고 아껴주신 세상에 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들에 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였다.

의거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을 모시여 공화국에서는 모 든 일이 잘되고 인민이 만복 을 누릴 그날을 향한 전진의

서였다.

면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

문이다.

인민을 믿고 인민의 힘에

정 순 진

몇달전 인민의 리상도시로 변모된 삼지연시 준공식장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준공식장 에 나오시자 군중들은 키돋 움, 발돋움하며 만세의 환호 성을 터쳐올리였다.

그때 한 녀성근로자가 경애하는 원수님앞에 향기그 이시였다. 윽한 꽃다발을 안고 나섰다. 그이에 대한 인민들의 다 함없는 감사의 마음을 담 아 꽃다발을 드린 녀성근 로자는 지난해 4월 삼지연시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나보신 세쌍둥

이자매의 둘째였다. 나서자란 평양을 떠나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 에도 참가하였고 삼지연시에 삶의 뿌리를 내린 세쌍둥이

처녀들이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새로 건설한 살림집에 입 사한 그들을 만나시고 시대 가 낳은 청년들의 미덕이고 본보기이라고 치하하시며 좋 은 배필을 만나 가정을 이루 『면 자신께 꼭 편지를 쓰라 든대도 다 담을수 있겠는가.

26

고 사랑의 약속을 하시였다. 세쌋듯이자매의 장래까지 관심하시며 그들과 기념사진 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다심하신 친아버지

준공의 날 경애하는

원수님을 또다시 뵈옵게 된 녀성근로자는 그이께 자기들 세쌍둥이자매의 마음과 삼지 연인민들의 마음,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을 합쳐 감사 의 인사를 올렸다.

그러나 너무도 소박한 꽃 다발을 그이께 드리는것만 같은 마음이였고 이 땅의 꽃 을 통채로 안겨드리고싶었던 것이 그의 심정이였다. 아 니,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

은 마음이였다. 그이께서 온 한해 애민헌신 으로 가꾸신 행복의 열매들 을 맛보게 된 인민들의 감사 의 마음을 어찌 이 땅의 꽃 을 다 엮어 큰 꽃바구니를 만

경애하는 원수님께 올린

다발이였다. 꽃다발은 그이께서 인민들에 게 안겨주시는 크나큰 사랑 여 한밤이 지새도록 나누는

삼지연땅의 새 집에 입사하

천물에 몸을 담그고 누구나 가 마음속으로 외워보는 그 말도, 한겨울에 중평의 푸르 싱싱한 남새를 안아보며 터 치는 목소리도 하나와 같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본사기자 고성호



삼지연시 준공을 경축하여 환호를 올리는 인민들

바다물맛을 알기 위해 온 대양의 세 등 사진에 담는 모든 범상한 감 바다물을 다 마셔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살림 집을 방문했던 외국인의 말이 잊혀 지지 않는다.

《조선에서 말하는 일심단결이 무엇인가는 이 기념사진만을 보아 도 충분히 알수 있다. 기념사진속 의 눈빛들은 마치 가를수도 가리울 수도 없는 친근한 정을 속삭여주는 것만 같다.》

그의 놀라움을 자아낸 이런 화폭 은 공화국에서 자주 목격하게 되 는 류수같은 생활의 단면일뿐이다. 다채로운 생활의 시공간을 력사 의 갈피에 고착시키며 인간의 감정 정서에 깊숙이 침투해온 사진의 력

사는 오래다. 하지만 공화국에서 사람들이 남기 는 기념사진에는 추억이나 약속, 맹

정을 초월하는 심원한 세계가 있다. 누구나 체험할수 있는 영광의 순간 으로 되고 누구나 즐겁게 터놓는 생 활의 기쁨넘친 화제로 된 경애하는

원수님과 인민이 함께 찍는 기념사진. 때로는 삼지연 땅과 같은 지방 도시의 사람들 속에서, 때로는 행복에 웃는 원 아들속에서, 때 로는 생산의 동

음 드높은 공장

구내에서… 인민들을 찾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민헌신의 발걸음과 더 불어 온 나라가 그대로 기념촬영장 이 되였다.

물고기산을 보시면서는 몸에서 물고기비린내가 나도록 잘 먹는 자 식들을 그러볼 병사들의 고향집을 에서는 례사로운 생활의 화폭속에 생각하시며 기념사진을 남기시고 서도 느낄수 있다.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셨을 때에는 온 나라 어머니들을 생각하 면서 사진을 찍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한 나라의 령도자와 인민이 그 렇게도 많은 기념사진을 남긴것 도 이례적이지만 그 무수한 사진 의 갈피를 번져 볼수록 더 놀라

하게 된다. 사진속의 모 습들이다. 고향 도, 나이도, 성별도 저마끔이고 표정 도 각각이지만 눈빛에서만은 하나의

운 사실을 포착

격앙된 감정이 비껴왔다. 그 손길 놓치면 잃을듯, 떨어지

면 숨질듯... 현실을 증명하는데서 사진만큼 위력한것은 없다고 했지만 공화국

사람의 눈이 마음의 거울이라면 눈빛은 심장이 발산하는 불빛이라 는것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하많 은 추억의 물결을 실어오는 뜻깊은 기념사진들에 사색을 얹느라면 하

나의 거세찬 대하가 안겨온다. 기별없이 문득 옥류아동병원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기쁨에 겨워 에워쌌던 아이들의 엄마들이 며 산처럼 쌓아놓은 물고기를 흥 이 나서 손질하던 차림으로 그이를 따라서며 환호를 올리던 동해포구

의 녀인들… 행복에 울고웃는 모습속의 눈빛 들은 말해주고있다.

뿌리깊은 혈연의 그 정이야말로 천만금과도 바꾸지 못할 공화국의 귀중한 재보, 그 무엇으로써도 흉 내낼수 없는 공화국의 진짜모습이 라는것을.

본사기자 박영진

녀성들에 대해 말할 때 흔 에 자신의 심신을 다 바치 히 사랑과 아름다움, 부드러 움과 헌신성에 대해서 이야 기하군 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정과 사랑은 더없이 귀중한것이 지만 이 땅에는 그보다 나 라와 민족을 더 중히 여기며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애국의 삶을 바치 고 빛내인 유명무명의 녀성 들이 많다.

그 많고많은 녀성들중에는 이미 도서들과 다부작예술영 화 《민족과 운명》을 통하 여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진 허정숙선생도 있다.

처녀시절에는 서울장안의 이목을 모은 유명한 《녀성 3총사》중의 한사람으로 불 리우머 녀류기자로 활약하 고 1920년대에는 민족주의 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세파속에서 모대기기도 했 던 허정숙선생이다. 한때 그 는 녀성의 몸으로 총을 잡고 이국땅에서 쉽지 않은 항일 투쟁도 하였다.

였다.

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 회 서기국 국장,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 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 위원장, 조선해외동포원호 위원회 위원장 등 중요직책 에서 사업하면서 그는 80고 령이 넘을 때까지 민족과 통 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헌신하였다.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를 따라 통일위업에 헌신한 녀 성들속에는 류영준선생도 있다.

1890년 11월 평안남도 대 동군의 빈농가에서 태여난 류영준선생은 나라의 독립 을 위해 처녀의 몸으로 일 찌기 독립운동에 나섰던 녀 성이다.

《창씨개명》을 하지 않 아 박해를 받으면서도 반일 의 지조를 지킨 그는 8.15후 남조선에서 남조선민주녀성 동맹이 결성될 때 위원장으



아버지(허헌)와 함께 있는 허정숙선생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당시 정로사의 기 자생활을 하던 그는 력사적 인 4월남북런석회의의 나날 에는 조직준비위원회 서기장 사업을 하면서 온 겨레가 굳 게 뭉쳐 민족분렬의 엄중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업

로 선거되였다.

그는 1947년초 민족분렬주 의자들에 의해 체포되여 가 혹한 고문을 받는 속에서도 자기의 정치적신념을 굽히 지 않고 민족의 령도자이신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 고 따른것이 어찌 죄로 되느

냐고 과감히 항거하며 싸웠 다. 그는 외국군대가 점령 공화국의 첫 녀성상, 조국 군행세를 하고 리승만과 같

은 매국의 무리가 판을 치 는 남조선땅에서는 진정한 나라의 해방과 녀성들의 권 리라는것은 있을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였 다. 몸서리치는 폭압의 지 옥에서 모진 고통을 이겨내 고 석방되지 얼마 안되던 어 느날 그는 뜻밖에도 크나큰 영광에 접하게 되였으니 어버이수령님께서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주신것이다.

그의 북행길을 막아보려고 음모군들이 사랑하는 딸을 앗아갔을 때에도 그는 민족 의 위대한 령도자를 그리며 기어이 38° 선을 넘어 북으 로 갔다.

련석회의 초청장을 보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선 을 헤치고 평양에 온 그를 4월남북련석회의의 주석단 에 앉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후 그는 공 화국의 품에서 조국통일민 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 장단 성원으로, 조선민주녀 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 장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업하면서 조 국의 부강번영과 통일을 위 해 애썼다.

오늘도 애국렬사릉을 찾으 면 나라의 통일을 위한 길 에 한생을 바친 허정숙선생 과 류영준선생의 모습이 참 된 삶이란 무엇인가를 후대 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고 있다.

여기에 이런 시구절이 있다.

민족의 통일 위해 죽음에 살리라고 문목사 앞섰던 길 뒤따른 봄길녀사

사선을 헤치고 평양에 와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령전에 남녘인민들의 애도의 마음을 담아 삼가 인사를 드 리고 백두산정에 올라 통일 만세를 부르며 겨레의 가슴 마다에 통일열기를 뜨겁게 불러일으킨 《통일할머니》 를 남녘으로 떠나보내는 석 별의 정에 겨워 공화국의 한 시인이 지은 시이다.

통

외모도 체소하고 성정이 착한 박용길녀사가 겨레의 기억속에 살아있는 《통일 할머니》로 불리우게 된데 는 남편인 문익환목사의 뒤 를 이어 조국통일을 위한 길 에 자기의 여생을 깡그리 바 치리라 결심한대로 꿋꿋이 살아온 그때문일것이다.

박용길녀사는 남조선사회 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길 에 나선 문익환목사의 뒤바 라지를 하면서 자기도 남편 과 함께 그 길에 나설 용단 을 내리였다.

그때부터 그는 한가정의 안해, 자식들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남조선사회의 민주 주의적발전을 위해 투쟁하 는 재야인사로, 녀성활동가 로 자기의 이름을 뚜렷이 하 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한 문



문익환목사의 조각상과 함께 있는 박용길녀사(만수대 창작사에서)

인은 《여기서 주목할것이 〈문익환의 등장〉이라는 현 상뒤에 숨어있는 또 한사람 의 력사적등장이다. 정확히 〈문익환현상〉의 절반을 만 들어내는 안해 박용길의 재 야 첫 등장은 눈부셨다.》고 말하였다.

박용길녀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1돐이 되는 주체84(1995)년 평양을 방문 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였다. 소복단장을 한 박용길 녀사를 만나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큰절을 올리는 그를 다정히 일으켜세워주시 며 이렇게 만나니 정말 반

갑다고, 고령의 몸으로 어려 운 길을 오느라고 고생이 많 았겠다고, 이렇게 와주어 정 말 고맙다고 뜨겁게 교시 하시였다.

그는 1995년 7월 31일 《조국통일 만세!》를 힘 있게 웨치며 판문점분리선 을 넘어갔다.

고생과 단두대도 두려움없 이 통일의 길을 가고간 수 많은 녀성들과 더불어 오늘 도 박용길녀사의 이름은 우

리 민족의 통일운동 력사에 뚜렷이 새겨 져있다.

통일의 길에서 꽃 으로 피여난 수많은 녀성들의 아름다운 생애들에 대해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을것이다.

한가정의 운명보 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먼저 생각 하며 민족과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 심신을 깡그리 바쳐가고있는 장한 녀성들이 있어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 동사는 줄기차게 흘 러왔으며 앞으로 더 욱 힘차게 전진할것 이다.

본사기자 강류성 기들의 목소리를 합치면서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하여

유엔의 비법적결의가 조선

사회주의와 민 족해 방운동을 대하는 《랭전정 책》인 《트루맨 주의》를 선포한 후 미국은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 서 침략과 간섭, 전쟁책동에 매달 렸으며 그 중요 한 고리로서 남조 선을 저들의 식민 지로, 군사기지로 영원히 전락시키 려는 책동을 로골 적으로 감행하여 나섰다.

>

0

Т

0

Т

0

Н

0

미국은 남조선 민주력량에 대한 전면적탄압을 강 화하는 한편 다 시 열린 쏘미공동 위원회사업을 종 국적으로 파탄시 키고 남조선에 단 독《정권》을 세 우기 위한 책동 에 집요하게 매달 렸다.

위 해 이 를 1947년 9월 조선문 제를 유엔에 끌고 갈 흉책을 공포하 였고 11월에는 유 엔총회 제2차회의 에서 《유엔림시 조선위원단》을 조작하고 그 허수 아비기구에 조선 에서의 《선거관 리권》을 비롯한 광범한 《권한》

을 부여할데 대한

비법적결의를 강 압통과시켰다. 외세의 침략도구인 《유 엔림시조선위원단》이 서 울에 기여들자 남조선민전 산하의 정당, 사회단체들 은 《유엔림시조선위원단》 을 반대배격하는 자기들의 단호한 립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남조선의 중간과 일부 우익의 정당, 단체들도 자

민족의 리익과 상치된다는 것을 까밝히면서 그를 반대 배격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당시 《한국독립당》 당수 였던 김구도 《유엔림시조 선위원단》과 만난 자리에 서 《첫째로, 유엔결의에는 우리의 자주권행사가 명시 되여있지 않다. 둘째로, 필 연적으로 남북분렬의 우려 가 있다. 셋째로, 유엔의 감시는 내정간섭이니 부당 하다.》라고 주장하여 내외 의 관심을 끌었다.

남조선인민들은 《유엔림 시조선위원단》을 반대배격 하는 견결한 립장을 밝혔을 뿐아니라 그를 부추겨서 민 족분렬을 획책하는 외세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대 중적투쟁에 일떠섰다. 《유엔림시조선위원단》

이 서울에 기여들던 1948년 1월 8일 영등포의 경성방직 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로 동자들은 《인민생활이 도탄 에 빠지고 외국의 부당한 간 섭에 의하여 국운이 위태롭 게 된 오늘 우리 로동계급은 용감하게 펼쳐나설 때가 왔 다.》고 선언하면서 파업에 들어갔다. 이를 신호로 하여 룡산지구와 서울시내 그리고 인천지구 로동자들이 《유엔 림시조선위원단》 입국을 반 대하는 파업과 시위에 들어 갔으며 부산, 대구를 비롯 한 령남지방과 광주를 비롯 한 호남지방에로 투쟁은 확 대되였다.

1월 13일 황해도 연백군 화성면(당시)의 2 000여명 의 농민들이 《유엔림시조 선위원단》절대반대궐기대 회를 열고 투쟁에 나선데 이 어 17일에는 충청북도 충주, 괴산, 제천, 영동의 농민들, 18일에는 경상북도 영주, 전 라북도 장수의 농민들 그리 고 기타 여러곳의 농민들이 투쟁에 펼쳐나섰다.

투쟁에 합류한 청년학생 들은 《유엔림시조선위원 단》을 배격하는 대중적서

20대의 청춘기를 수난의

명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여 기에는 서울에서 3만여명.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만도 27만여명의 학생들이 참가 하였다.

1948년 2월 7일 남조선의 광범한 로동자대중은 《조선 의 분할침략계획을 실시하는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반대 한다!》, 《남조선단독선거 수립을 반대한다!》, 《량 군동시철퇴로 조선통일민주 주의정부수립을 우리 조선인 민에게 맡기라!》, 《정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기라!》 등 의 구호를 들고 전 지역에 걸치는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 투쟁은 하루동안에 서울 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인 천, 광주, 화순, 려수, 대 전, 청주, 삼척 등과 기타 남조선의 중요도시와 산업지 구에로 확대되었으며 각 부 문의 8만여명의 로동자들이 참가하여 사회의 이목을 끌 었다.

남조선전역의 도시와 농 촌, 공장과 광산, 학교와 거 리들에서 100여만명의 로동 자, 농민, 청년학생, 도시 소시민 등 각계층 인민들이 펼쳐나서 벌린 투쟁에 질겁 한 《유엔림시조선위원단》 은 허둥지둥 유엔본부로 돌 아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당 시 《유엔림시조선위원단》 의장은 《유엔소총회》에서 남조선에서 《단독정부》수 립을 지지하는것은 오직 리 승만과 대지주, 대자본가들 의 집단인 《한민당》뿐이 며 좌익과 중간파는 물론 다 수 우익정객들까지도 《단독 선거》에 의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있다는것을 실토하지 않을수 없었다.

《유엔림시조선위원단》 과 《단독정부》조작음모를 반대하여 벌린 남조선인민 들의 대중적투쟁은 남조선 인민들의 자주의식을 드높 이고 민족분렬을 획책하는 외세에게는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본사기자 김 영 진

1930년대초 서울의 영화관 들에서는 무성영화 《임자없 는 나루배》가 성황리에 상 영되였다.

영화는 나라잃은 민족이 겪고있는 비극적운명을 비 로 하여 당시 조선사람이라 면 누구나 보고싶어하는 작 품으로 알려져있었다.

이 영화의 녀주인공역을 맡아 수행한 배우가 바로 문 예봉이였다.

그가 영화계에 발을 들여 놓게 된것은 아버지와 함께 연극창작활동을 벌리던 가까 운 친지였던 라운규의 덕이 였다.

난생처음 촬영기앞에 나 선 문예봉은 몹시 당황하였 다. 게다가 영화의 녀주인공 의 운명이 너무 불쌍해서 자 꾸만 눈물이 나왔다. 그러나 식민지망국노라면 누구나 겪 던 생활. 자기자신도 체험하 고있는 가련한 인생살이를 그는 어렵지 않게 형상할수 있었다.

그후 첫 유성영화 《춘향 전》에서 춘향역을 맡게 된 그는 순결하면서도 외유내 강한 춘향의 성격과 내면세 계를 진실하게 형상하여 동 료들과 관중들을 감탄시켰 었다.

천성적으로 타고난 소박 한 품성과 아련하면서도 인 정미가 넘치던 그였지만 나 라를 빼앗고 조선사람들에게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한 왜 놈들에 대한 중오심은 남달 리 강했다. 하기에 그는 어 떻게 춘향역을 그렇게 훌륭 수행할수 있었는가고 묻는 동료들에게 연기에 들 어가니 변학도란 놈이 꼭 왜 놈같아 치솟는 분격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말해주었다.

이렇게 무대우에서는 명 성높은 녀배우였지만 집세 를 제대로 물지 못해 피덩 이같은 아이를 안고 밤새도 록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지 않으면 안되였고 더우기 페 결핵을 앓고있는 남편때문에 많은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아, 집! 언제면 따뜻한

보금자리와도 같은 내 집을 가질수 있단 말인가?)

싶은 열렬한 희망에 앞서 그 의 마음을 더욱더 괴롭힌것 은 군국주의영화에 출연하라 는 일본놈들의 가증스러운 요구였다. 그것을 거절한다 면 일생의 천직으로 여기던 교적 진실하게 그러낸것으 영화배우생활을 그만두어야 하였던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계가 급 하고 배우생활을 계속 하고 싶어도 민족적량심은 팔아먹 을수 없었다.

얼마후 《조선일보》를 비 롯한 여러 신문들에는 문예 봉이 영화계에서 은퇴했다 는 기사가 일제히 실리였 다. 《임자없는 나루배》는 드디여 겹쳐드는 풍랑에 정 처없이 표류하기 시작했더것 이다

나라없던 시절 영화계의 별로 한때 이름을 날리던 문 예봉의 배우생활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였다.

감격스러운 조국해방의 날 을 그는 어느 한 시골에서 맞이하였다.

일제가 쫓겨가고 해방이 되였으니 민족영화예술의 발 전을 위하여 발벗고 나설 때 가 왔다는 기쁨을 안고 그는 다시 서울로 갔다.

그러나 그곳은 민족영화예 술을 꽃피울수 있는 활무대 가 아니였다. 남조선에는 패 망한 일본군을 대신하여 외 국군대가 다시 기여들어왔 고 8.15와 함께 머리를 움 츠렸던 친일파, 민족반역자 들이 다시 활개치기 시작하 였다.

문예봉은 민족적량심을 지 닌 예술인들과 함께 외세의 식민지파쑈통치를 반대하여 공장과 가두, 거리와 마을들 에서 민족문화를 발전시키자 는 구두선전을 힘차게 벌리 였다.

그 죄 아닌 죄로 체포령을 받게 되였고 온 가족이 헤여 져 여기저기 숨어다니며 살 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귀가 번쩍 뜨이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민족영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영화예술인재들을 귀중히 여 그러나 정든 집을 가지고 길데 대한 교시를 주시고 예술

공 화 국

따뜻한 요람에 삶의 닺을 내리여

영화를 전문으로 창조하는 기 지를 내오도록 해주시였다는 것이였다.

(아, 북의 영화예술인들은 얼마나 좋을가!)

운명의 막바지에서 예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 면 안되였던 그는 지체없이 가족과 함께 38° 선을 넘어 북행길에 올랐다.

로하는 인민들이 주인으로 된 공화국의 품에 삶의 새 닻을 내리게 되였다. 북으로 온 문예봉은 조선

이렇게 되여 문예봉은 근

국립영화촬영소(당시)에서 보람찬 예술창조를 시작하 였다

꿈만 같은 현실이 매일같 이 펼쳐지는 속에 그에게 있 어서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할 그런 날이 왔다.

1948년 8월 어느날 촬영소 의 한 책임일군이 급히 문예 봉의 집을 찾아왔다.

《예봉동무, 빨리 가기요. 김일성장군님께서 동무를 찾 으시오.》

《예?!》 순간 그의 심장은 끝없이 높뛰기 시작하였다. 찾아온 일군이 《이러고있으면 어떡 하오?》 하며 재촉하는 소리 에 그는 두주먹을 부르쥐고 촬영소를 향해 정신없이 달

리기 시작하였다. 숨이 턱에 닿아 촬영소구 내에 들어서던 그는 그 자 리에 돌처럼 굳어졌다. 글쎄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마주 걸어 오시는것이 아닌가.

몸둘바를 몰라 인사도 변변 히 올리지 못하고 서있는 그 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문예봉 동무를 만나니 반갑다고, 남 조선에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고,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하시는것이였다.

《장군님!》 겨우 이렇게 말씀올리고나

고개를 뗠군 그의 동실 한 어깨는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러 는 그에게 집은 잡았는가고 또다시 물어주시였다. 감격 에 목이 메여 미처 말씀을 올리지 못하고있는 그를 대 신하여 한 일군이 지난봄에 장군님께서 돌아보신 그 집 에 들었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문예 봉에게 아이들은 몇이나 되 는가, 학교에는 다 다니는가 고 다시 물어주시였다. 친정 어머니와도 같으신 그이의 따뜻한 물으심에 그는 어느 덧 어려움도 잊고 가족들도 무사히 들어왔으며 아이들도 모두 학교에 다니고있다고,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집에서 아무런 불편이 없이 행복하게 살고있다고 말씀

드렸다. 그의 대답을 다 들어주신 수령님께서는 그러면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면서 애로되는 것이 있으면 어려워말고 다 제기하라고 혈육의 정을 부어주시였다.

그는 또다시 흐느껴울기 시작했다.

문예봉은 그날의 감격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해방후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되는 예술영화 《내 고향》의 녀 주인공 옥단역을 훌륭히 수 행하는데 자기의 지혜와 열 정을 다 바치였다. 영화가 완성되였다는 보고

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 도 영화를 보아주시고 창조 성원들에게 해방후 처음 나 온 영화인데 잘되였다고, 동 무들의 손으로 만든것이니 무에서 유를 창조한셈이라고 거듭 치하하시면서 예술영화 를 계속 만들어야 하겠다고 고무해주시였다.

진정한 영화예술의 세계에

몸을 담그고 무한한 행복감 에 싸여있던 그는 이 땅에 전쟁의 포화가 휩쓸던 준엄 한 나날에도 영화예술인들에 를 받아안았다. 게 돌려지는 어버이수령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배려속에 자기의 역형상을 세련시켜 나갔다. 그 나날에 그를 비

술영화인 **《**소년빨찌산**》**을 완성하였다. 전쟁이 한창인 조선에서 나 온 예술영화 《소년빨찌산》 체스꼬슬로벤스꼬(이전) 에서 진행된 국제영화축전에 서 《자유를 위한 투쟁상》 을 수여받았으며 런일 초만

롯한 창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

이 받들고 전쟁시기의 첫 예

원을 이루면서 상영되였다. 문예봉은 그때 공화국에서 제정한 공훈배우칭호를 수여 받았다.

1954년 예술영화 《빨찌산 처녀》의 주인공역을 훌륭히 형상하여 인민들을 기쁘게 해준 문예봉은 다음해 새해 를 경축하는 국가연회에 참 가하여 어버이수령님으로

부터 처녀역을 정말 잘하였 다고, 앞으로도 처녀역을 잘 하라는 과분한 치하의 교시

그후 어느 한 연회장에서 그는 또다시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고 그이께서 몸소 부어주시는 축배잔을 받게 되였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동무는 아직 젊었 는데 왜 로인역을 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사실 그때 그 에게는 대학에 다니고있는 자식이 있었다. 당황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에게 수령님께서는 동무에게는 지 금이 한창때인데 벌써부터 로인역을 하기 시작하면 진 짜 늙어버리고만다고 타이르 듯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늙기 마련이고 영화배우 역시 나 이가 들면서 로인역을 맡는 것은 당연한것이였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 는 점차 사라져가는 한 녀배 우의 청춘을 두고 그렇듯 아 쉬워하시며 마음쓰고계시는

그 세월에 실어보내고 30대 에 수령님의 품에 안긴 그 에게 있어서 진정한 예술활 동의 시작도, 예술창조의 청 춘시절도 바로 지금이였다.

것이였다.

그의 심장은 격정으로 끓어 넘치고 얼굴은 붉게 였다. (수령님, 수령님의 품에

서 언제나 청춘으로 살겠습 니다!)

그는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천리마운동이 힘차게 벌어 지던 격동적인 시기에 예술 영화 《다시 찾은 이름》, 《성장의 길에서》, 《금강 산처녀》를 비롯한 많은 예 술영화들에 출연하여 조선영 화사의 한페지를 수놓았다. 그는 1982년에 인민배우칭

호를 수여받았다. 평범한 영화배우였던 그 에게 돌려지는 위대한 사랑 의 세계는 정녕 그 끝을 몰 랐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는 60고개를 넘긴 문예봉에 게 예술영화 《춘향전》에서 리도령의 어머니역을 형상하 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 시였다. 그 옛날 조선의 첫 유성영화 《춘향전》의 주인 공역을 하였던 그여서 더더 욱 격동되는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주체82(1993)년 2월 12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학예 술부문의 로장들과 함께 문 예봉을 또다시 불러주시고 해방직후부터 50년가까이 함 께 일해온 나날들을 감회깊 이 추억해주시였다

문예봉은 끝없는 감격속에 장내를 둘러보았다. 영생불멸 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애국가》를 작곡 한 김원균과 작가 백인준, 조령출, 신진순…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문예봉동무가 일생동안 나의 배려만 받고 기쁨을 드리지 못했다고 하는데 왜 기쁨을 주지 못하였겠습니 까, 문예봉동무는 해방직후 부터 지금까지 많은 영화를 만드는데 참가하였습니다라 고 하시며 예술영화 《내 고 향》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가 출연한 영화들을 일일이 꼽

아주시였다. 기구한 운명의 곡절로 열 다섯살에 영화배우가 되여 나라잃은 예술인의 민족적 설음과 온갖 모멸을 사무치 게 느껴온 녀배우를 하창시 절은 더 말할것도 없고 인 생의 황혼기에도 언제나 잊 지 않으시고 손잡아 이끌어 주신 위대한 사랑의 품.

그는 총화작이라고 할수 있는 예술영화 《먼 후날의 나의 모습》 창조과정을 마 치고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렸을 때 먼 후날의 나 의 모습인 지금을 상상조차 할수 없었다. 어릴 때 할아 버지가 커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가인박명) 이라는 말을 자주 외우군 하였다. 하지만 나는 오늘 이 말을

부정하게 된다. 내 나이 이제는 80이 넘 었다. 작년초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든번째로 맞 는 생일에 은정어린 생일상 까지 보내주시였다. 공화국 의 품은 진정 나의 정든 집 이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닻을 공화국이라는 크고 따뜻한 포구에 내리고 값높은 삶의 자욱을 걸어온 녀배우의 심 장에서 울려나오는 웨침이 였다.

본사기자



배우들과 함께 있는 문예봉선생(가운데)

스스로 매문집단의

정성과 객관성은 언론의 생 명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조선일 보》,《동아일보》,《뉴스 1》을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언론본연의 사명을 줴버리고 반공화국모략여론을 조작하 고 류포시키는 너절한 행위 들을 벌리고있다.

《자력갱생으로 제재를 정 면돌파하는것은 한계에 직면 할수밖에 없다.》, 《오랜 경제난과 제재속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이다.》고 하 면서 궤변을 줴쳐대는 꼴을 보면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보수언론의 추악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지어 이 언론 아 닌 모략집단들은 태를 묻은 고향이 있고 혈육이 있는 조 국을 배반한 인간쓰레기들까 지 내세워 치졸하고 유치한 모략여론을 조작류포시키는 데 혈안이 되고있다.

이 모든것은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압살책동을 물거품으 로 만들며 정면돌파전에 산 악같이 일떠선 공화국인민들

閿

남 조 선 언

론들의 보도

19일 6.15공

동 선 언 실 천

남측위원회

를 비롯한

자회견을 열

フ

서울에서

83개 시민사 회단체들이 서우에서 기

위 등 ^{훈련중단을} 강력히 요구

화와 군사행동은 량립될수

요구하였다.

1해병사단 참관, 미

국방대학에서의 강연

리였다고 한다.

이니. 《한미동맹은 평화와

안전의 든든한 초석》이니

하였다.

단체 들은

기자회견문

을 통하여 대

예로부터 정의와 진실, 공 의 억센 기상에 기절초풍한 자들의 부질없는 악다구니질 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미친개가 짖는다고 행렬이 멈추어설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모 략과 날조를 생리로 하는 극 우보수매문가들의 눈에는 절 대로 제힊으로, 자기 손으로 인민의 높은 리상과 포부를 실현해나가는 공화국의 밝 은 현실이 제대로 비쳐질수 가 없다.

강한 저력과 잠재력으로 인 민의 지상락원을 세우기 위 해 일떠선 공화국의 존엄높 은 영상을 구역질나는 미친 나발질로 흐려놓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 석은것은 없을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모략적인 보도조작은 동족대결을 위 해서는 그 무슨짓도 가리지 않는 남조선보수언론들의 추 악한 면모만 세상사람들앞에 드러내는 결과가 될것이다. 정의와 진실을 사람들에게

이어 련합군사훈련중단

이야말로 최소한의 신뢰조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

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

끝으로 그들은 4.27판문

에 담긴 자주와 평화의 정신

에 따라 남조선미국련합군사

훈련을 중단하는것은 응당하

군사훈련을 반드시 중단하고

평화에로 나가야 한다고 주

같은 날 전라북도지역의

18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루어진 《전북평화회의》

도 전라북도 도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조선반도의 평

력히 요구하였다.

다고 하면서 현 당국이 련합

알려주어 그들이 민족의 화 해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도 록 고무추동하지는 못할망 정 거짓과 랑설로 여론을 기 만하는 남조선보수언론들은 마땅히 력사의 시궁창에 처 박혀야 할 더러운 매문집단

이다. 모든 행동은 흔적을 남기 는 법이다.

력사와 겨레는 신성한 언 론의 본도를 저버리고 동족 대결의 앞장에서 시대착오적 인 망동을 일삼는 보수언론 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기록 해두고있다.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야욕 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그 다 《천안》호침몰사건과

대고있다.

남조선에서 선거철만 되 무엇도 가리지 않는 권력에 환장한자들의 추태가 아닐수 면 찾아오는 《단골손님》

> 보수세력들이 떠드는 《북 총선개입설》은 민심의 보수심판기운을 동족대결에 로 돌려 《총선》 국면을 저

들에게 유 리하게 만 들어보려 는 상투적 이고 유치 한 반공화 국모략극

이다

보수세력들이 선거철이면 저들에게 쏠리는 민심의 규 탄기운을 무마시키고 불리한 선거국면을 역전시키려고 공 화국을 걸고 갖은 모략소동 을 벌려온것은 자타가 아는 사실이다. 과거 리명박, 박 근혜《정권》시기 선거때마

《집단탈북사건》등 각종 모 략사건조작으로 《북풍》과 《안보위기》를 조성하려고 비렬하게 책동한것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번에도 보수세력들은

《총선》을 앞두고 물에 빠 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

진자 지푸래기 잡는 격으로 또다시 우익보수적인 매문가 들을 내세워 그 무슨 《선거 개입설》을 류포시키며 막다 른 정치적위기에서 벗어나보

지금 온 남조선땅이 《COVID-19》로 공포속에 잠겨있다.

려고 발버둥치고있다.

이것을 해소하는데 힘을

넣을 대신 오히려 동족대결 을 조장하는 《안보》타령까 지 늘어놓으며 불안감을 더 욱 증폭시키고있으니 남조선 의 보수세력들이야말로 저들 의 더러운 권력야욕을 위해

> 을 역적무 리들이다. 권 력 쟁 탈을 위한 여 야 시 정 배들의 니

전투구와 도 같은 역겨운 선거판에 공 화국이 꼬물만 한 흥미도 가 질리 없다.

하지만 저들의 더러운 정 략적목적을 달성해보려고 함 부로 공화국을 입에 올리고 횡설수설하는것은 묵과할수 없는 일이다.

더우기 인간이기를 포기 한 《탈북자》쓰레기들을

략《정당》까지 조작하면서 동족대결에 열을 올리는것 을 공화국인민들은 참을수 없는 도발과 우롱으로 여기 교있다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에 미 쳐날뛰는 보수세력들이 남조 선 각계층은 물론 공화국의 언론들로부터 민족의 원쑤 반역의 무리로 단죄규탄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해

야 할것이다. 보수세력들이 《북풍》조 작과 《안보》소동으로 남 조선민심을 기만하며 비루한 잔명을 부지하던 시대는 영 원히 지나갔다.

역적무리들이 비렬한 모략 소동에 매여달릴수록 그것 은 저들의 목에 걸린 올가미 를 더욱더 조이는것으로 될 뿐이다.

본사기자 김 응 철

바로 보수세력들이 떠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최근 남조선의 보수세력들

은 《북이 언론들을 통해 저

들에 대한 심판여론을 조

성하는 등 4월에 진행되는

총선에 개입하려 하고있

다.》고 떠들고있다. 지어

는 《북이 이번 총선을 앞두

고 그 무슨 〈도발〉로 보수

세력들이 재집권하면 전쟁이

일어날수 있다는것이 거짓이 아닌 현실이라는것을 보여주

려할수 있다.》고 예측까지

하면서 중구난방으로 떠들어

이 《단골손님》은 어김없이

《북선거개입설》이다.

찾아왔다.

낚조선에서 다가오는 《총선》을 계기로 보수세 력들이 어떻게 하나 권력을 탈취하려고 분주탕을 피우 고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리승만이나 박정희, 전두

참가자들은 진정으로 평 화를 바란다면 련합군사훈 런중단부터 선언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진 정한 안보는 평화로 담보되 여야 한다고 하면서 남조 선미국련합군사훈련은 물 확장계획도 즉시 철회할것 을 현 당국에 강력히 요구

하였다. 하고 조선반도평화를 수호하 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 의로운 애국투쟁이다.

평화와 통일은 우리 겨레 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념원

남조선에서 전쟁의 먹구름 을 몰아오는 군사적소동들이 벌어질수록 각계의 항의투쟁 합군사훈련을 중단할것을 강 리 천 봉 환, 로태우 등 《미래통합 당》의 조상들이 권력탈취를 위해 써먹던 구호를 그대로 들고 현실에 써먹고있는것이 바로 보수세력들이다. 권력 야욕에 환장한 보수세력들이 지지표를 하나라도 더 그러 모으겠다고 꼭두각시정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까지 조작하는 추악한 망동

세상에는 정당들이 많아도 하나의 정당에 소속되는 《위 성정당》은 오직 남조선에만 있다. 역시 썩을대로 썩은 남 조선정치판에서만 볼수 있는 희대의 정치만화이다.

을 부린것이 그 하나의 실

《국회》를 타고앉기 위한 흉싞에만 사로잡혀 《위 성정당》까지 만들어내는 《미래통합당》의 책동으로 하여 남조선선거판은 시간 이 갈수록 더욱더 란장판으 로 변하고 이에 대한 민심의 저주와 환멸은 극도에 달하

민생은 내던진채 오로지

온 남조선이 《COVID-19》 감염사태로 아우성치고있는 때에 선거판을 권력쟁탈전 의 더러운 시궁창으로 만들 고 저마다 살겠다고 개싸움 질만 하는 정치권에 민심은 침을 뱉고있다.

김 현 일

불 과 한 해산을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 중의 소리》에 의하면 민주 로총과 참여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정치 개혁공동행동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 지고 위장정당인 《미래한국 당》의 해산을 요구하였다.

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의석확보용으로 《미래한국

이다. 상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결정책에서 추호도

당》을 조작한데 대해 밝히 고 이것은 국민들을 모욕하 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

행태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 고 하면서 단체는 꼭두각시 불과한 위장정당인 《미 래한국당》을 즉시 해산하 고 국민들에게 사죄할것을 요구하였다.

단체는 570여개 시민단 체들이 앞으로 《미래한국 당》 해체를 위한 《국회》 청원운동에 돌입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굴종의 대가로 계속 례지는것은

덕이여도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리속만 챙기려고 돈

얼마전 미국은 3월말까지 올해 방위비분담금문제와 관 련한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 지 못하면 4월 1일부터 미군 기지 로무자들에게 무급휴직 을 실시할것이라고 남조선당 국에 통보하였다고 한다.

세로 모아진 엄청난 자금을 방위비분담금의 명목으로 해 마다 뜯어가다 못해 더 짜 내려고 미군기지에서 일하 는 남조선로무자들에게 무급 한것은 미국의 강도적본성을

미국이 남조선인민들의 혈

드러내보인것이다. 남조선경제가 침체에 빠져 들고 인민들이 생활고에 허

을 더 내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것도 지금 내는 돈 의 5배를 내라고 요구하고있 으니 남조선인민들이 분격해 하지 않을수 없다. 이렇게 된데는 미국의 요

구라면 덮어놓고 굴종하고 받아들여온 남조선위정자들 에게도 책임이 있다. 력대로 남조선위정자들은

미국의 강박에 찍소리 한마

디 못하고 그 요구를 고스란 히 받아들여왔다. 무자들을 인질로 방위비분

담금증액을 강박하는 미국

지로 몰아넣어 어떻게든

의 행위에 항변 한마디 못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 계층은 미국이 안보의 미명 하에 남조선국민들의 세금을 일하는 남조선로무자들을 인 질로 《치사한 협박》을 일 삼고있다고 하면서 《정부 가 미국의 눈치를 볼것이 아 니라 중액을 반대하는 국민 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고 주장하고있다. 미군기지 도 미국의 횡포와 당국의 친 지금도 남조선당국은 로 미굴종적태도에 분격을 표시

남 궁 봄

페기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 들》이 2일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페기를 요구하는

론평은 미국이 미군기지에 서 일하는 남조선로동자들에 대한 무급휴직통보로 협박하 며 방위비분담금증액을 강요

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을 50억US\$를 받아내려는 야 비한 술책이라고 론평은 밝 패권적요구를 실현하기 위

해 일방적으로 남조선국민 의 혈세를 강탈하려는 미국 의 폭력적행태에 대해 론평 은 규탄하였다.

론평은 《정부》가 미국의 론평은 강조하였다. 불법부당하고 일방적인 요구

에 굴종하지 말고 국민의 혈 세강탈의 통로로 되고있는 방위비분담금협상을 중단하 고 《방위비분담금특별협 정》 페기에 나설것을 요구한

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세계패권전략을 수 행하는 남조선주둔 미군의 주둔비를 받아내야 한다고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날강도적인《을사 5 조약》의 날조

민족에게 저지른 죄악은 헤 로 날조되였다. 아릴수 없이 크다.

천추만대를 두고도 갚지 못 력을 집결해놓은 조선침략의 할 엄청난 죄악들이다

지난 세기 초엽에 감행된 문)는 황궁에 기여들어 고종 일본의 날강도적인 《을사 황제에게 일본인통감을 임명 장을 데리고 서둘러 황궁에 며 서문과 조항들만 있을 5조약》 날조행위도 그러한 할것과 각 개항장에 일본인 뛰여든 이또 히로부미는 회 뿐이다. 죄악들중의 하나이다.

5조약》을 날조해냈다.

날조해낸것은 가장 포악하 전달하고 무조건 접수할것을 날조한 《조약문》을 《결 법무효한 《조약》이다. 고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우 리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 은 전대미문의 국권강탈범

구와 원칙을 란폭하게 유린 하면서 허위날조하고 일방 적으로 공포한 불법무효한 《조약》이였다.

가들사이의 자원적인 의사합 을 벌려놓기까지 하였다. 의를 기초로 하고있다.

일본이 력사적으로 우리 협을 조장하는 속에서 강제 진행되였으나 대신들의 반대 의 중요한 절차인 황제의 서

그 하나하나가 다 일본이 서울일대에 수많은 침략군무 일의 경우 즉시 군대에 명령 괴수 이또 히로부미(이등박 1905년 11월 17일 일본은 '를 도꾜에 이전할데 대해서'는 정부대신들을 붙들어 옆 철저히 일본이 총칼을 휘둘 강제적인 방법으로 《을사 와 일본의 승낙없이 어떠한 방에 모여놓고 《조약》에 러 날조해낸 조약 아닌 날치 협정도 타국과 체결할수 없 일본이 《을사5조약》을 다는 내용의 《조약》원안을

강요하였다. 일본의 강도적본성과 침략 유인하여 위협과 공갈, 회유 그것이 통할리 없었다.

은 무력으로 황궁안팎을 겹 략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겹이 포위하고 황궁앞 종로 국제조약의 체결은 주권국 부근에서 광란적인 군사훈련 보고서》와 1963년 제15차 뜨리던 그때로부터 많은 세

《을사5조약》은 평등의 서 열린 어전회의에서는 는 《을사5조약》이 불법적 오늘도 우리 민족의 귀전을 원리가 전혀 적용되지 못하 《조약》체결을 거부하기로 이고 《절대적으로 무효》한 치며 비법적이고 강도적인

고종황제와 조선봉건정부의 본공사 하야시사이에 《조 이 그 근거로 제시되였다. 대신들을 상대로 공포와 위 약》체결을 둘러싼 론의가 《을사5조약》은 조약발효

을 내리기 편리하게 할 목적 으로 조선주둔 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대장과 사또헌병대

행정관을 임명하며 외교사무 의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 찬성할것을 강박하였다.

지나간 국제조약사의 갈피

적인 조약까지 무력을 발동 고통을 들씌웠다. 이렇게 되자 일본은 수많 하여 강압적으로 날조한 침

유엔국제법위원회에 제출된 월이 흘렀다. 1905년 11월 17일 황궁에 《월더크의 보고》 등에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조선봉건정부 대신들과 일 군대를 동원한 강압적체결》 본의 죄행에 대해 낱낱이 고

로 종당에는 파탄되였던것이 명. 국새날인도 없으며 조약 《을사5조약》날조를 위해 다. 이 소식을 전달받고 만 체결에 필수적인 전권대표의

> 또한 《을사5조약》에는 조약의 이름조차도 없으

완전히 결여되여있다.

이처럼 《을사5조약》은 기허위문서이며 그 어떤 법 그리고는 강제로 저들이 적타당성도 가질수 없는 불

정》짓게 하고 당시 조선봉 일본은 불법무법의 《을사 일본은 고종황제가 그것을 건정부 외부대신의 공인을 5조약》을 내들고 조선을 날 단호히 일축하자 조선봉건정 훔쳐다 《조약문》에 찍는 강도적으로 강점하고 식민지 부의 대신들을 일본공사관에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 화하였으며 근 반세기에 걸 쳐 전대미문의 식민지파쑈통 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을 와 기만의 방법으로 그들을 를 헤쳐보아도 일본과 같이 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민족 사5조약》은 국제법상의 요 굴복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나라들사이에 체결하는 국제 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 우리 민족이 나라를 통채 로 빼앗기고 피눈물을 흘리 하기에 1935년의 《하바드 며 《시일야방성대곡》을 터

그때의 비통한 목소리는 것으로 지적되였으며 《일본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 발하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장하였다.

이 미국을 행각하였다. 행각기간 그는 《주한미 연기문제 등에서 미국의 양 수인의 궁색한 처지를 방불 군전우회》 관계자들과의 간 보와 지지를 구걸하였다고 히 그려준것이였다. 담회 및 **《**6. 25전쟁 70주년 기념 워싱토지역 참전용사초 첫행사》, 조선전쟁 에 참가하였던 미제

없다고 하면서 남조선미국 화를 가로막는 남조선미국련

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얼마전 남조선국방부 장관 방위비분담금증액문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아간 그의 행각모습은 그자

체가 미국없인 살수 없는 하

더욱 가증스러운것은 남 이를 두고 남조선 각계에 조선국방부 장관이 제 처지

신》이니, 《감사의 마음》 식방문》이라는 비난의 목소 이고 완전하며 검증된 비 세에 빌붙어 동족과 대결하 온 남 조 선 땅 이 호한 대응》과 《강한 힘》 나 비참하였다는 력사의 교 하며 아부굴종의 추태를 부 《COVID-19》의 급격한 확 을 줴치며 반공화국대결책 훈을 되새겨보는것이 좋을것 산으로 공포에 잠겨있는 때 동에 계속 매여달릴 흉심 이다.

등 도처에 머리를 들이밀고 서는 《동냥갔다 매맞고 온 도 모르고 상전앞에서 《제 선국방부 장관은 사대매국에 《전쟁참전자들의 희생과 헌 방문》, 《실속없는 겉치레 재결의》리행과 《최종적 달아오른 머리를 식히고 외 핵화》를 떠들다 못해 《단 러들었던자들의 종말은 언제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상전을 믿고 흰소리치기 잘하는 정경두따위의 그러한 넉두리에 리성있는 조선사람치고 누가

이번 기회에 남조

본사기자 안권일

귀를 기울이겠는가.

남조선에서의 《COVID-19》전파실래. 감염자 6 088명, 사망자 41명

보도들에 의하면 남 기로하였다. 조선에서 5일 16시현재 6 088명으로, 사망자는 41명 생하였다. 하여 서울의 25개 이 《COVID-19》에 감염

으로 증가하였다. 467명의 비루스감염자가 추 가로 발생한것으로 된다.

부분이 신천지교회를 중심으 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 와 경상북도지역에서 나왔다.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에서 로인 34명이 한꺼번에 《COVID-19》 감염자로 확

인되였다.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40대 녀성이 확진받은 이후 남편과 7살, 12살 난 두 딸도 비루스에 감염되였다는것이 밝혀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와 린접한 경상북도 경 산시에서 **《**COVID-19**》**감 염자가 급격히 증가하고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곳을 감염 병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

서울 룡산구에서는 첫 환자들이다. 자치구중 23개 자치구에서 되였다는것이 확인되였다.

한편 미국방장관에게는 에 대양건너 미국에까지 찾 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은것

이 것 은 4일 16시 이후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한다. 사망자들도 모두 대구, 경 대로 남조선에서 오는 방문 사람들에 대한 입국을 금지 상북도지역에서 나왔으며 대 객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 한다고 밝혔다.

등 질병을 앓고있던 고령의 다. 특히 입국을 전면 금지 한 나라와 지역은 싱가포르 《COVID-19》 감염 자는 《COVID-19》 감염자가 발 남조선주둔 미군가족 2명 를 비롯하여 40곳이다.

오 스 트 랄 리 아 는 《COVID-19》 류입을 차단 한편 《COVID-19》의 확 하기 위해 남조선에서 오는



마스크구입을 위해 줄지어 서있는 남조선주민들

초등급방역조치들을 더욱 철저히, 더욱 엄격히

를 막기 위한 사업이 전국 오물과 하수. 그 주변을 철 가적으로 힘있게 벌어지고 저히 소독하고있다.

국가의 긴급조치에 따라 전염병의 발생초기부터 긴급 들에서는 다양한 형식과 방 비상방역조치들이 강력히 시 법으로 중앙과 지방, 도시와

없어질 때까지 위생방역체계 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 하였으며 중앙과 도, 시, 군 적으로 벌리고있다. 들에 비상방역지휘부가 조직 되여 이 사업을 통일적으로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진행하고있다.

해당 기관들에서는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 간에서 비루스전염병이 들어 대책을 앞질러가며 세워나가 올수 있는 통로를 선제적으 고있다. 로 완전히 차단봉쇄하였다.

경통과지점들에서 검사검역 사업을 강화하고 외국출장 자들과 주민들에 대한 의학 적감시와 검병검진을 빠짐없

또한 국경연선지역에 대한 시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출장, 려행을 극력 제한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접촉 을 완전차단하도록 하였으며 국가비상방역체계가 해제될 때까지 국제렬차, 국제항로 운영과 관광봉사를 근절하며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및 의 학적감시대책을 엄격히 세우 고있다.

이와 함께 의학적감시대상 자들속에서 심장병, 고혈압, 기관지염 등을 앓고있는 사 람들에 대한 의학적관찰을 특별히 강화하는 한편 치료 도 적극 따라세우고있다.

보건부문과 도시경영부문 에서는 격리자들과 격리장 소들에 대한 위생조건보장과 의학적감시를 보다 강화하며

3월 8일은 전세계 근로 녀성들의 국제적명절이다. 이날을 국제부녀절이라고 한다.

1910년 단마르크의 수도 쾨뻰하븐에서 진행된 제2차 국제사회주의자녀성 대회에서는 1909년 독점자 본가들의 가혹한 착취와 억 압을 반대하고 남녀평등권

공화국에서 《COVID-19》 격리장소와 거리에서 나오는 대한 대책들이 토의되였다.

신문과 TV, 방송을 비롯 한 출판보도부문과 보건기관 농촌들에서 **《**COVID-19**》** 의 위험성과 전파경로, 감염 증의 증상과 진단, 예방치료 와 관련한 위생선전을 집중

뿐만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하고 위생방역사업을 강화하 는데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 과 시설을 확보하는 등 방역

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있는 비루 스전염병을 막기 위한 국가 적인 초특급방역조치들을 더 욱 철저히 취하고 얶격히 실

공화국이 취하고있는 이

러한 긴급비상방역조치들은 《COVID-19》 와의 투쟁에 서 가장 확고하고 믿음성이 높은 선제적이며 결정적인

세계보건기구와 의료 및 방역전문가들도 방역선진국 걷잡지 못하는 전염병이 조 선에 들어가지 못한것은 차 단과 격리격페조치가 적절한 시기에 시행되고 전사회적, 전인민적인 행동일치와 동원 력이 있기때문이라고 평하고

《COVID-19》를 막기 위 한 초특급방역조치들을 더 욱 철저히, 더욱 얶격히 시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







시위를 벌린 미국 시카고의 대성을 표시하고 그들이 투

과 자유를 요구하여 파업과 을 매해 전세계 녀성로동자 들의 국제기념일로 할것을

전세계 근로녀성들은 이 고있다 쟁에 일떠선 날인 3월 8일 때부터 해마다 국제부녀절

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위업을 위한 투쟁의 날로, 녀성들의 평등과 권리를 위 한 전세계 진부적녀성들의 단결을 강화하고 그 위력 을 시위하는 날로 기념하

본사기자

백상루는 평안남도 안주시 있는 옛 안주성 장대터 세운 루정인데 고려시기 에 처음 세우고 조선봉건왕 조시기에 고쳐세웠다.

백상루는 안주성의 북장대 로서 그 전망이 좋고 아름다와 예로부터 관서8경의 하나로 널 리 알려진 명승고적이다.

백상루라는 이름자체가 백 가지 좋은것을 다 볼수 있는 루정이라는 뜻이다.

백상루는 규모가 큰 루정 으로서 밑에는 정연한 기단 이 갖추어져있고 장방형으로 생긴 2개의 루정이 가로세로 맞붙인것처럼 생긴 2층의 겹 처마 합각루이다.

루정의 평면은 남쪽정면 7간(25.82m), 동쪽측면 6간(18.9m), 서쪽측면 4간 (12. 24m) 이다.

백상루의 기둥배치에서는 네면 가운데간들을 넓게 하

받친 두리기등을 세우고 그 았다. 마루테두리에는 계자 각기둥을 세우고 로라로 련 결하였으며 옆에는 바람구멍 을 뚫은 판자를 댔다. 마루 가운데간에는 오르내리는 계

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8) 아시아유술계의 강자 김진아

김진아는 2019년에 진행된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맞다드 는 선수들을 물리치고 금메 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

방에서 2019년 아시아-태 평양유술선수권대회가 진행 되였다.

이 선수권대회는 아시아와 오세안주에 있는 나라와 지 역의 선수들이 참가한것으 로 하여 큰 규모에서 진행 되였다.

선수권대회의 녀자 57kg급 경기에서 그는 세계선수권대 회를 비롯하여 국제경기에서 순위권에 든 전적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 높고 로련한 선 수들을 모두 이기고 결승경 기에 진출하였다.

결승경기에서 그와 맞다든 일본선수는 세계선수권대회

있는 몽골선수를 이기고 결 승경기에 올라온것으로 하 여 우승후보자로 지목되고

경기시작을 알리자 그는 자기의 특기기술을 발휘하면 서 주도권을 틀어쥐고 신심 있게 경기를 진행하였다. 연 장전에서 그는 주동적인 공 격을 들이대여 마침내 일본 선수를 이기고 우승의 단상 에 올랐다.

그는 2019년 국제유술련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에서 우승한 전적을 가지고 기대회 너자 57kg급경기에서

맹 후허하오터그랜드상유술 경기대회 녀자 57kg급경기에 서도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또한 2019년 국제유술련맹

기대회 녀자 57kg급경기에 출전하여 적극적인 공격으로 맞다드는 선수들을 물리치고 희선수처럼 유술계의 최강

2019년 청도세계유술강자경

맞다드는 선수들을 압도적인 기술적우세로 물리치고 결승 경기에 진출하였다. 결승경 기에서 그는 시작부터 주도

그는 세계유술녀왕 계순 자가 될 높은 목표를 안고 이에 자만하지 않고 그는 훈련에서 땀을 아끼지 않고

본사기자 리철민

(력)(사)(유)(적<u>)</u>

두공은 3익공바깥도리식이 가지 형태이며 그 하나는 한

다. 두공의 꽃가지형제공은 아래우에 현꽃봉오리를 재치 있게 새겨 훌륭한 조각예술 품을 이루었다.

피여나는 런꽃을

안의 서쪽 5간은 앞뒤에 각

액방우에 얹은 화반은 두 각 두줄로 기둥을 배렬하고 며 그 물림이 아주 치밀하 포기의 련뿌리가 퍼지면서 았다. 천정은 통천정으로 하 여 집안이 장중하면서도 시 원해보이게 하였다.

> 백상루에는 건물과 주위환 경에 어울리게 모루단청을 입혔다. 고려시기 백상루는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전 투를 지휘하던 장대로서 중 지붕은 합각식이다. 건물 요한 역할을 놀았다.

본사기자



사화

력서의 발전에 기여한 강보(2)

글 전 철 호, 그림 채 대 성

《내가 서릉을 본받으라고 한건 바로 그런 어진 마음 을 가지라는것이였지 제 어 미나 돌보라는 소리는 아니 였다. 사람이 집안일에 빠지 면 큰뜻을 이루지 못해. 이 어민 네가 산학에 달통해서 반드시 나라에 소용되는 인 재가 되라는게다. 그걸 바라 기에 이 에민 병이 나도 쓰 러지지 않아.》

안겨오지 않아 어머니가 불 만스럽기까지 하였다.

을 넘었사오니 집일을 도울 수 있소이다. 그러면서도 공 부를 얼마든지 할수 있다니 까요. 》

모르겠느냐. 지금 너에게 있 어서 하루하루는 후날의 열 흘, 백날맞잡이다. 한초한 초가 귀중한 이때에 열심히 글을 파고들지 않으면 후날 엔 늦어. 더우기 산학은 깨 우치기가 어려운 학문인데 다 너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의 년세가 높으시단걸 왜 생 각지 못하느냐. 선생님이 너 때문에 얼마나 속태운줄 아 느냐?》

그 말에 강보는 말문이 히였다.

강보에게 글을 배워주는 백운동 글방선생은 산학에서 라면 나라에서 일러주는 재 사였다.

(국자감의 후신, 성균관의 전신)에서 퇴직한 칠십로인 인데 전국도처에서 그가 키 운 제자들이 산학의 재주로 나라를 돕고있었다.

《얘야. 너도 설경성의원 에게 병을 보여서 그분을 알 지. 그분은 어린시절에 열 심히 의술을 배워 10대에 명 의가 되셨다. 세상에서 제 그때 강보는 그 말뜻이 잘 노라 하는 명의들이 손을 털고 나앉은 이웃나라 임금 의 병도 어렵지 않게 고치 《어머니! 저도 이젠 열살 여 이 땅 고려의 명성을 뗠 치지 않았느냐. 어머니들은 바로 그런 아들을 두기를 원 하는거다.》

강보는 그때 일이 생각나서 《그렇게도 이 에미속을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 하고 목메여 불렀다.

강보는 저녁무렵 의원을 찾아가 약을 지어가지고 집 으로 향했다. 약꾸레미를 들 고 집으로 가는 강보는 동지 날이 며칠밖에 남지 않은것 이 놀라왔다.

태사국에 입직한지가 어제 같은데 어느새 소설이며 대 설의 절기들이 지나가버린것

이였다. 그동안 절기가 그렇게 바 뀐줄도 모르고 일한것이 자 못 새삼스러웠다.

강보는 동대문근처에 있는 백운동어구에 들어서서야 집 을 가까이했음을 깨달았다. 늘 아름다운 흰구름이 떠돈

이제는 나이도 많아 국학 대서 백운동이라 불리우는 마을에 강보네 집이 있었다.

사립문안에 들어서니 등불 에 비쳐진 어머니의 모습이 안방문에 어려있었다. 바느 질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절로 걸음이 멈춰지고 가슴이 뭉클했다.

어머니는 지난날에도 병을 앓을 때조차 저녁늦게까지 바느질을 하군 하였다. 자기 가 장가든 오늘까지도 병석 에 계시는 어머니를 고생시 킨다고 생각하니 강보의 가 슴은 쓰리였다. 방문을 열 고 들어서며 《어머님!》 하 고 부르니 어머니 김씨는 너 무 반가와 어쩔줄을 몰라하 였다.

《왔구나, 왔어. 그래 그 동안 앓지는 않았느냐? 일은 다 잘되고?》

어머니앞에 무릎을 꿇고앉 은 강보는 약꾸레미를 내놓 으며 입을 열었다. 《제 맡은 일은 잘되여가

고있소이다. 헌데 어머님병 은 어떠하오이까?》 어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

으며 대답하였다. 《늙어지면 누구나 오는 병, 가는 병 다 걸리기마련 이니 걱정말어라.》

어머니는 아들이 하는 일 이 마음에 놓이지 않는지 다 시 물었다.

《정말 력서를 만드는 일 이 힘들지 않느냐?》

강보는 아들생각밖에 없는 어머니의 마음이 리해되여

웃음을 지었다.

다. 》 강보의 자신만만해하는 대 답소리에 김씨는 가슴이 후 련해졌다.

《힘든게 하나도 없소이

고생끝에 락이라더니… 이 제는 떠나간 남편앞에 떳떳 하다고 할수 있을것이였다. 강보의 아버지는 강보가 가 고사리같은 손가락을 꼽 아가며 백, 천을 거침없이 세는것을 보고 아버지는 깜 짝 놀랐었다. 그래서 세살때 부터 셈법을 가르치기 시작 하였더니 그 어린것이 두자 리수까지의 더하기, 덜기를 식은 죽 먹듯 하는것이였다. 군사로 나가면서 아버지는

이 아이는 보통아이가 아니

니 이제 돌아와서 내가 직접



5살 나던 해에 왜구와의 싸 움에서 돌아오지 못하였다. 그는 눈을 감으면서 아들을 꼭 훌륭한 산학자(수학자) 로 키워달라는 유언을 남기 였다. 그 당부를 전해들었을 때 김씨는 눈물을 삼키며 남 편의 뜻대로 아들을 꼭 산 학자로 키우리라 마음다지 였다.

강보는 셈법을 타고난듯싶 었다. 두살때 셈세기를 배워 주었는데 마치 배속에서 알 아가지고 나오기라도 한듯 척척 받아무는것이였다. 겨우 걸음마를 뗴는 아이

고 하였었다. 허나 아버지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였다.

집안의 가장이 없는 속에 서 그것도 가난한 살림살이 에 자식의 공부를 시킨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니였다.

김씨는 춘하추동 어느 하 루도 번짐이 없이 삯빨래, 삯바느질을 해야 했다. 그 가긍한 모습을 보다못해 가 까운 사람들은 재가를 하는 것이 어떤가고 권고하기도 하였다.

재가를 하면 살아가기 좋 다는거야 왜 모르겠는가.

아들의 뒤바라지를 하겠다는 강심을 먹고 오정방의 늘안 골에서 여기 동부의 백운동 마을로 이사를 왔던것이다.

하에서 뛰여난 제자가 난다 는 말이 옳은것 같았다. 강보는 백운동 글방선생에 게서 산학을 배운지 몇달이

안되여 김씨를 깜짝 놀라게

강보는 8살때부터 글방에

다니였다. 뛰여난 스승의 슬

하였다. 그날 저녁도 김씨는 아들 을 앉혀놓고 글방에 나가 배 운걸 알아보았다. 아들이 제 하기(나누기)를 배웠다기에 백일흔넷을 하나반으로 제 하면 답이 얼마지 하고 물

그랬더니 제꺽 백열여섯 입니다 하고 대답하는것이 였다.

었다.

속셈으로 답을 내려면 적 어도 한 열댓쯤 세는 동안 은 걸리겠지 했는데 웬걸 마 치도 풀어놓고 기다린듯 답 을 내놓으니 김씨는 믿어지 지 않았다.

《어떻게 빨리 답을 낼수 있었느냐?》

《거야 뭐 어려울게 있소 이까. 백일흔넷 제하기 하나 반을 덮어놓고 암산하지 않 았소이다. 쉽게 답을 낼수 있도록 백일흔넷 승하기(곱 하기) 둘 하여서 삼백마흔여 덟을 얻고 그것을 셋으로 제 하기하였소이다.》

그날 김씨는 자기의 밭은 지식으로 더는 아들을 가 르칠수 없다는것을 절감하 였다.

19세기말~20세기초 조선 의 력사기록에는 자선사업 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한 백

평양의 어려운 집안에서 태여난 그는 아는것은 적었으나 완강성과 의 협심이 매우 강했다.

선행이라는 녀인이 있다.

가난한 집에 출가하 여 일찍 남편을 잃고 16살에 과부가 된 그 물 였지만 의기를 잃지 않고 어떻게 하나 살 길을 개척해나가리라 결심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꽃장 사도 해보고 콩나물 과 두부장사도 하면 서 하루도 번지지 않 고 꾸준히 일했다. 그 과정에 점차 그

에게는 저축이 생기 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힘을 얻은 그는 돼지도 사다 기르고 밤

하면서 잠시도 쉬지 않았다. 그는 축적된 돈을 마구 탕 진하지 않았으며 자기의 피 와 땀으로 마련한 많은 자금

을 사회를 위한 일에 고스란 히 바치였다.

해마다 장마철이면 물에 잠겨 주변사람들에게 늘 불 편을 주군 하는 《솔뫼다

리》가 있다는것을 알게 된 그는 주저하 지 않고 많은 돈을 희 사하여 1908년에 든 든한 석조다리를 만

들어세우게 하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다리를 《백선교》 라고 즐겨 부르기 시 작한것이 다리이름으 로 굳어지게 되였으 며 녀인의 비단결같 은 마음을 찬양하여 그를 백선행이라고

불렀다. 그후에도 그는 거 액의 돈을 투자하여 학교와 공회당건물

도 지었고 평양의 광 성소학교와 창덕학교, 숭의 에는 베를 짜고 무명낳이도 녀학교와 같은 학교들에 많 은 토지들을 기증하여 계몽 사업과 후대교육사업에 이바 지하였다.

본사기자

(2) (2) (0)

끼는 마스크를

01

从

딸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의사들은 수술할 때 왜 반드시 마스크를 끼 나요?》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

했다.

《그거야 수술이 혹시 잘 못되기라도 하면 환자가 자 기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러는거지.》